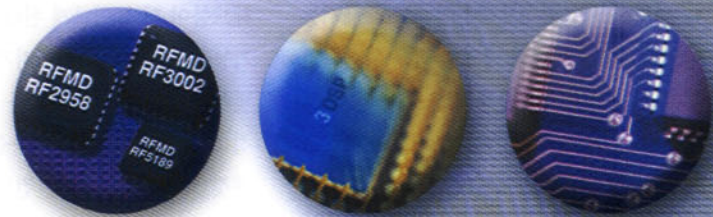


'Electronic Summit 2003' 몬터레이서 열려 “Emerging Company” 두각 신제품 신기술 대거 선보여 - Leading the Recovery -

이공흠 기자
 leekh0@semiconnet.co.kr

김홍덕 기자
 Hordon@semiconnet.co.kr



이번 행사를 주관한 Globalpress의 CEO인 Irmgard Lafrentz가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불황이 길어진 가운데 긴 터널의 끝을 헤집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대표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골프코스로 유명한 페블 비치(Pebble Beach) 인근의 몬터레이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40여명의 기자들을 불러모아 우리는 이런 제품으로 불황을 타개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존의 쟁쟁한 반도체업체들보다는 “Emerging Company”들이 많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회사의 소개보다는 제품소개와 기술을 소개하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지는 세션들이 주목받았다.

기조연설을 한 SIA(미국반도체산업협회) 수석연구원인 도우 안드레이는 “Post PC를 내다 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PC로는 새로운 수익창출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디지털 홈 미디어에 많은 기대를 건다.”고 덧붙였다.

TSMC 북아메리카 사장인 에드워드 로스는 “현재의 기술 개발 속도가 계속된다면 90nm 공정 속도가 가속화돼 내년쯤이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2-3년내로 대체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사에서 두드러지게 관심을 모았던 분야는 “반도체 IP”, “나노기술”, “프로세서 기술”, “무선기술”, “FPGA대 ASIC” 등 5개분야로 이루어진 패널 토론이었다. 어느 하나 부실하게 진행된 것 없이 깔끔한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한국사회의 무선 기술을 언급하며 패널 토론에 참석한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무선 LAN 제품 담당이사인 앨런 바로는 “반도체 시장의 원동력이 언제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의 무선화가 될 것”이라며 “IT 시장의 무게 중심이 무선 LAN을 중심으로 크게 재편될 것”으로 새로운 시장을 예고했다. 어쩌면 Post PC의 대안이 여기에 있을 지도 모른다.